

# ‘류현진마저...’ 다저스, 부상 악재 발목

애리조나전 다리쪽 불편 호소...1⅓이닝 자진 강판  
주축선수들 줄줄이 크고 작은 부상에 전력 반토막



류현진(31·LA 다저스)은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2회말 부상을 당한 후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예 탈출 특명을 받고 출격한 류현진(31·LA 다저스)이 부상으로 2회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강판했다.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에 시름하던 다저스는 류현진마저 부상 악재에 발목이 잡혔다. 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벌어진 2018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선발등판했다.

지난달 3일 애리조나를 상대로 시즌 첫 등판에서 3⅓이닝 3실점 조기 강판됐던 수모를 되갚을 기회였다. 최근 4연패에 빠진 팀을 구하기 위해서도 류현진의 호투가 절실했다. 류현진은 1회 안타와 볼넷으로 1, 3루 위기를 맞았지만 전적 풀 골든 슈미트를 삼진 처리하는 등 실점하지 않았다.

2회 첫 타자 케틀 마르테를 1루 땅볼로 가볍게 처리한 뒤 후속 타자 데비 마레로를 상대로 먼저 투스라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마레로에게 2구를 던진 후 류현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투구를 이어가지 못하자 트레이너를 비롯해 데이브 로버츠 감독까지 마운드에 올라 류현진의 상태를 살폈다. 정확한 부상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리 쪽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류현진 스스로 강판을 택했다. 결국 류현진은 1⅓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의 기록을 남기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평균자책점은 2.22에서 2.12로 낮췄지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전까지 5경기에 선발 등판해 28⅓이닝을 소화하며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22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피안타율은 0.152에 불과했고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도 0.85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투수 왕국으로 불리던 시즌 전 평가가 무색하게 다저스는 시즌 초반 선발진이 붕괴됐다. 선발진 가운데 승인이 따르지 않은 클레이튼 커쇼와 함께 류현진에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수술과 재활로 2015, 2016시즌을 통째로 날리다시피 한 류현진은 지난해 재기에 성공했다. 올 시즌 부상 후유증을 완전히 털어낸 모습이었다. 하지만 불과 6번째 등판에서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다저스 입장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은 아닐 수 없다. 올 시즌 다저스는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드러누우면서 팀 성적도 곤두박질쳤다.

저스틴 터너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신승 거포 코리 시거는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됐다. 리치 힐과 아시엘 푸이그, 로건 포사이드 등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

사실상 2선발 노릇을 하고 있는 류현진마저 부상자 명단에 오를 경우, 다저스 전력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다.

뉴시스

## 류현진, 왼 사타구니 염좌...부상 정도·복귀 시기 미정

10일짜리 DL오를 경우 한차례 선발 등판 건너 뛰어

류현진(31·LA 다저스)이 사타구니 이상으로 조기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 정도에 따라 부상자명단(DL)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저스 구단은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에서 2회 1아웃 만에 강판된 류현진의 교체 사유가 '왼쪽 사타구니 염좌(left groin strain)'라고 밝혔다.

다저스는 "류현진이 왼쪽 사타구니 근육 부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었다. 얼마나 지리를 비우게 될지 모르지만 10일짜리 DL에 오를 경우 적어도 한 차례 선발 등판을 건너 뛰게 된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1-0으로 앞선 2회말 1

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데비 마레로를 상대로 2구째를 던진 뒤 하체에 통증을 느껴 투구를 멈췄다.

트레이너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 류현진의 상태를 살폈지만 너는 투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진 강판을 택했다. 정확한 부상 정도나 결장 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타구니 염좌는 운동 선수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다.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보통 10일짜리 DL에 오른 뒤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류현진도 과거 사타구니 부상으로 등판 일정을 미룬 경험이 있다.

다만 사타구니 부위에 부상을 당하면 하체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투수가 공을 던지려 하면 하체 무게 중심 이동이 중요하다.

투수가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느끼면 당장 공을 던지는 것조차 힘들다. 류현진이 갑작스럽게 마운드를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하체 쪽에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 2014년 8월 애틀랜타 원정에서 엉덩이 근육을 다쳤고, 지난 시즌 스프링캠프 도중에도 내전근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하체 부상은 비교적 복귀가 빨랐다.

조기 강판으로 최근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이기는 했지만 어깨나 팔꿈치 등에 대한 부상이 아니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류현진의 추후 일정은 추가 검진과 치료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 피츠버그 감독 "강정호, 30일 안에 빅리그 복귀할 수도"

"뒤늦은 스프링캠프 마치고 빨리 복귀 하길"



음주 운전 파문으로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언제쯤 빅리그 무대에 복귀할 것인가. 피츠버그 클린트 허들 감독은

"강정호의 복귀 과정을 30일 안에 마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최근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강정호는 1일

플로리다주 브래드던의 피츠버그 훈련장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뒤늦은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들 감독은 "강정호의 팔과 다리 등 몸 상태가 경기를 뛸 수 있고 정상적인 스윙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실전 경기에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복귀 과정을 30일 내로 마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줬다. 2015년 빅리그 무대를 밟은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 연차특혜 2016년까지 배어난 활약을 펼쳤다. 데뷔 첫 해인 2015년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비시즌 기간인 2016년 12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나라로 떨어졌다. 경찰에 인건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여파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2017년을 허송세웠다.

강정호는 지난해 10월 피츠버그 구단의 주선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아길리스 시바에나 스 소속으로 뛰었다. 당시 타율 0.143(8타수 1안타) 1홈런에 그쳤고, 24경기를 치르는 동안 삼진 31개를 당하며 실전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방출됐다.

현지 언론은 그때를 떠올리며 강정호가 빅리그에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의 이른 복귀를 낙관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K리그 FC 서울-수원 삼성 슈퍼매치 미디어데이에서 FC 서울 이을용(왼쪽) 감독대행과 서정원 수원 삼성 감독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서정원·이을용 감독 "어린이날 슈퍼매치, 재미있는 축구 할 것"

이들 뒤 시즌 두 번째 슈퍼매치를 치르는 FC서울 이을용 감독대행과 수원 삼성 서정원 감독이 어린이날인 만큼 재미있는 축구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원은 5일 오후 4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EB 하나은행 K리그 2018 12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달 8일 시즌 첫 슈퍼매치는 득점 없이 막을 내렸다. 역대 슈퍼매치 최소 관중인 1만8122명만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두 팀은 지루한 수비 축구로 90분을 보냈다. "무승부는 의미 없다"던 미디어데이에서의 출사표는 공수 표가 됐다.

서 감독은 "첫 번째 슈퍼매치는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망스러웠던 경기였다. 이번 슈퍼매치는 어린이들에게 축구가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선홍 전 감독의 퇴진으로 갑작스레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대행에게는 첫 번째 슈퍼매치다. 이 감독대행은 "서울 분위기가 조금 침체됐는데 이번 슈퍼매치를 꼭 이기고 싶다. 최대한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은 앞선 11경기에서 고작 승점 11(2승5무4패)를 챙기는데 그쳤다. 12개팀 중 9위다. 수도인 서울을 홈으로 사용하는 대기업 구단의 성적표라기엔 초라한 수준이다.

이 감독대행은 슈퍼매치를 전환의 계기로 보고 있다. "빠른 축구를 생각하고 있다. 5월5일에는 전술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선수들에게 빠른 축구를 주문하겠다. 미드필드를 운영하면서 공격적인 게임을 할 생각이

다." 서 감독의 수원은 상황이 그나마 낫다. 승점 21(6승3무2패)로 전북 현대(승점 30·10승1패)에 이은 2위다. 하지만 최근 거듭된 연전으로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이다.

서 감독은 "솔직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다. 4월에는 3일 간격으로 15경기를 소화했다. 실질적인 스케줄"이라면서 "후유증도 상당히 크다. 2명이 퇴장을 당했고, 어제 경기에서는 체력적으로 고갈됐다고 느꼈다"고 우려했다.

다만 서 감독은 "3~4명이 아닌 8~9명씩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 속에서 실보다 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감도 많이 올랐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2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면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서 감독은 라이벌이자 좋은 선배였던 황 감독의 퇴진에 아쉬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친한 선배이고, 축구를 하면서 동고동락한 시간이 많았다. 라이벌 팀에 와서 같이 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갑자기 나가서 맘이 무겁다."

서울계 출발대에 선 이 감독대행을 두고는 "나도 처음 슈퍼매치를 할 때는 상당히 패기 있고 자신만만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고 시련도 많았다"며 웃은 뒤 "이 감독도 그런 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응원을 많이 할 것이다. 파이팅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두 사령탑은 "어린이날 열리는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성원을 청했다.

## '투타겸업' 오타니, AL 4월의 신인상

4경기 선발 2승 1패 평균자책 4.43...타율 0.333 4홈런 12타점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 4월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3일(한국시간) 이달의 선수, 투수, 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오타니는 아메리칸리그 4월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4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점 4.43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로도 뛰고 있는 오타니는 타율 0.333에 4홈런 12타점의 성적을 올렸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투타 겸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내셔널리그 4월의 신인상은 크리스티안 비야누에바(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받았다. 비야누에바는 25경기에서 8홈런 19타점을 기록했다. 디디 그레고리우스(뉴욕 양키스)와 A J 플라크(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각각 아메리칸리그, 내셔널



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신 미네이(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는 이달의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